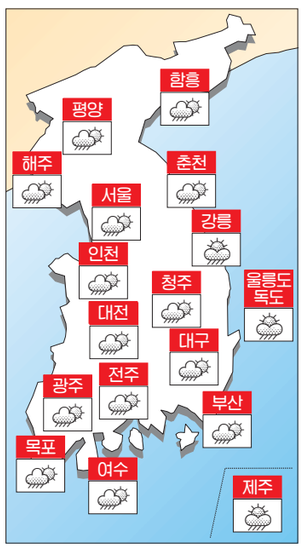
감기 조심하세요

기압골 영향을 받은 뒤 한 두 차례 비가온 뒤 밤에 개겠다.

9월 9일 (윤 7월 17일) 날씨

광 주	18~23℃
목 포	19~24℃
여 수	20~25℃
완 도	18~25℃
구 례	18~24℃
해 남	17~25℃
장 흥	18~25℃
고 흥	19~25℃
순 천	18~24℃
영 광	18~25℃
진 도	17~25℃
전 주	18~24℃
남 원	17~24℃
정 읍	17~24℃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1.0~3.0m
서해남부 먼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먼바다
남서~북서풍
파고 1.5~3.0m

▲해뜸 06:10 ▲해짐 18:49
▲달뜸 19:40 ▲달짐 07:33

목포 밀물〈03:05 15:23 썰물〈08:19 20:34 여수 밀물〈10:00 22:20 썰물〈03:47 15: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날 씨						
최저/최고	15/23	17/28	18/27	17/27	18/27	18/27

"납품비리 못 막고 뒤늦은 호들갑"

광주시교육청 '특별기획감사단' 등 학교 비리 근절 대책 '뒷북행정' 비난

시민·사회단체, 교육감 사과·관련자 파면 등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S중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수수 등 일선 학교의 잇단 비리 근절을 위해 뒤늦게 '특별기획감사단'을 운영키로 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감 공개 사과, 비리 관련자 전원 파면 등 철저한 사후조치와 함께 신설학교 업무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등 비리 사전 예방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7일 "납품·인사·급식 비리와 공직자 선거개입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미리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특별기획감사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교육비리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공사·계약·사학·학사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각종 비리를 신고받아 필요할 경우 집중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감사단을 꾸려 수습하겠다는 것은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정근 정책실장은 "시교육청이 교육 비리 근절과 교육계 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 마침내 작금의 사태를 양산한 만큼 그 어떤 변명도 용인받을 수 없다"며 "교육감 공개 사과와 비리 근절책 마련 없는 교육청의 '특별비리감사반' 운영 방침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민자 광주지부장은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 기자재 납품 과정을 감시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이전에 비품구입이 완료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교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품구입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비리를 예방했어야 했다"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시교육청 감사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참교육학부모회 김석순 부지부장도 "지난 6월 신설학교 6개교에 대한 감사가 서류 위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감사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기획감사단도 결국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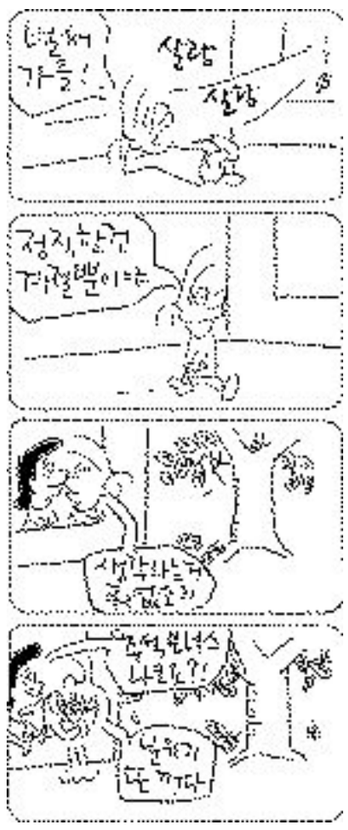
한편 광주전남교육연대·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 등 100여명은 8일 오후 6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교육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교육 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육감 공개 사과 ▲감사관계자 전원 징계 ▲비리 관련자 파면 ▲최근 3년 신설학교 업무 전원 재감사 ▲신설학교 업무 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원 등 100여명이 8일 오후 6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교육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교육 주체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감 공개 사과와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참 〈6922〉 김종두



장흥경찰 간부 음독

유서공개 안해 의혹

경찰 간부가 음독 자살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하다.

지난 6일 새벽 2시 15분께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인 박모(46) 경위가 장흥군 용산면 자신의 어머니 김모(67)씨 집에서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김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박 경위는 현재 전남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박 경위가 남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자세한 음독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주말 가을비…기온 뚝

들녘의 농작물에 흰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白露·9월 8일)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제법 쌀쌀해졌다. 주말인 9일에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조냉(早冷)'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9일 광주·전남에 5~20㎜의 비가 내린다"면서 "이에 따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약 5도 낮은 23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휴일인 10일에는 구름만 잔뜩 낄 전망이다. 10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여전히 쌀쌀하겠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서울대 내신 50% 반영

2008학년도 입시요강 발표

서울대는 8일 고교 2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입시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학생부는 50%(교과 40%, 비교과 10%) 반영하고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약화되고 학생부는 기본 점수를 감안할 때 약간 강화되는 데 그치는 한편 실질적으로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성적만을 반영했던 기존의 학생부는 2008학년도부터 출결, 봉사활동, 어학능력 등이 담긴 비교과 평가가 10% 반영된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20%, 논술 20%, 실기 40%, 면접 20%를 반영한다.

또 자격고사로 활용되는 수능성적(음대, 미대 제외)은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에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대의 경우 학생부 20%, 면접 20%, 실기 40%와 함께 수능 20%가 반영되며 미대는 학생부 5%, 면접 25%, 실기 25%, 논술 10%와 함께 수능 35%가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2008학년도 수시모집의 경우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고교별 지원 인원이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으며 1단계의 선발인원을 정원의 2배수에서 1.5배수로 축소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미대의 지원 자격을 폐지했고 사범대 체육교육과와 음대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폐지되는 것을 감안, 외국고교 전과정 이수자에 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모집 비율은 각 30~40%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수능 성적 결과 공개해야

학교별 학력차 드러나…평준화 논란일 듯

서울행정법원 판결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별·지역별 학력 차이가 드러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학 교육학과 조 모 교수 등 3명이 '2002년부터 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미 채점과 점수 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수 등이 '2002년과 2003학년도 학업 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능 성적 공개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시험은 대학 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일부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해 지역별·학교별 실력차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원데이터 공개를 우려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능 공개 판결이 나올 경우,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능 성적이 학교별로 또 시도 교육청 별로 공개되면 학교간 학력 차이는 물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의학력 차이도 비교할수 있게 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舊광주시청 부지 유통매장 건립

인근 상인들 "조건부 수용"

옛 광주시청사 부지에 대형 유통매장을 세우려는 계획에 반발했던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유통매장측과 의견접근을 이뤄 난항을 겪었던 유통매장 건립계획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유통매장 설립을 반대했던 대인시장측 상인들이 그동안의 대형할인점 입점 절대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해 유통매장을 추진하고 있는 ㈜필하임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대인시장 상가번영회'는 ㈜필하임측에 유통매장 운영에 따른 시장상인 생계보호 차원에서 인력채용과 일자리 확보 등을 최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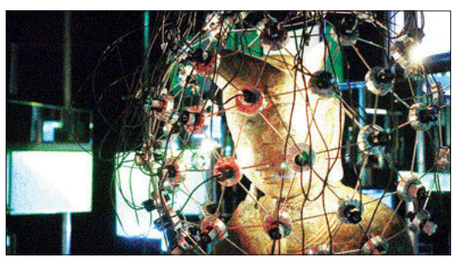
'상가번영회' 정범수 회장은 "아직 ㈜필하임측에서 구체적으로 상인들의 요구안에 대해 확답을 준 상태는 아니다"며 "그러나 수차례 내부회의를 거친 끝에 ㈜필하임측에 이같은 협상안을 제시했고 ㈜필하임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006 광주비엔날레 대상 수상작

中 송 동씨 '버릴 것 없는'

수상작은 송동씨의 어머니가 30여년간 모아놓은 다양한 물건들을 정리, 분류해 놓은 설치작품이다. 오랜 세월 수많은 손길을 거친 일상 소재들은 현대 사회에서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중국사회의 전통 정서와 소시민들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송동은 1966년 중국에서 태어난 뒤 북경사범대학을 거쳐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 개념미술을 이끌고 있다.



美 마이클 주 '보디 옵푸스케터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삼국시대의 '반가사유상'을 이용한 비디오 설치작업이다. 불상 주변에 15개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상의 각 부위를 조각난 파편처럼 보여준다. 현대 기술과 전통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또는 작가 자신의 전통적인 뿌리와의 다이내믹한 대화를 형상화했다. 1966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주는 워싱턴대학교를 졸업한 뒤 예일대 미술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뉴욕에서 활동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카자키균 검출 조제분유 전량회수

남양유업의 조제분유에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6개사 34개 조제분유 제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오염실태를 검사한 결과 남양유업이 지난 4월18일 제조한 '알프스산양분유' 제품에서 처음으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검사결과 '알프스산양분유' 제품 300g 당 1마리 정도의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검역원은 이 제품에 대해 지난 6일자로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분유 원료의 70%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됐고 국내산이 30% 가량 포함됐다.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치명적인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 가스 누출 60여명 중독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냉온수기 가스 추정

8일 오후 4시13분께 서울 종로2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돼 구연석(여·76)씨 등 상가 상인과 행인 60여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관 등 198명의 대원과 36대의 소방차·구급차량이 출동해 상가 상인들을 전원 대피시키고 지하도 입구를 봉쇄했으며, 전동차들은 종각역을 한동안 무정차 통과했다.

이로 인해 종각역 부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대 교통도 한동안 큰 혼잡을 빚었다.

병원으로 후송된 시민들은 서울 백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이대동대문병원, 국립의료원 등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현기증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효용 흡수식 냉온수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과다배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지하상가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한때 환경부 기준(1시간)의 10배에 가까운 225ppm에 이르렀으나 오후 5시30분께 기준 이하인 20ppm으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국세청 직원 사칭 세금 환급 사기

여수에서도 잇따라 발생

여수에서도 국세청 직원을 사칭,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위모(60·농업)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께 율촌면 율촌농협에서 "자신이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들로부터 환급 사기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위씨는 여성으로부터 "세금환급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곧이어 다른 남자가 위씨에게 통장을 지참하게 하게 한 뒤 근처 현금 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했다.

이어 이 남자는 위씨에게 "현금지급기에서 시키는 대로 누르면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라 속여 위씨 통장에서 559만여원을 자동이체시키도록 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여수 공화동 여수농협 동부지소에서 임모(46·주부)씨가 같은 수법으로 559만여원을 사기당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인터넷 타짜' 사이버머니 4경원 판매

쌍나팔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 게임으로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인 뒤 4경원(4조원의 1만배)에 이르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인터넷 '타짜'(화투 속임수 기술자)가 경찰에 적발.

○…서울종로경찰은 8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구입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오모(37)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10월말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를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A인터넷 게임사이트의 '포커'게임에 아이디 300여개를 만들어 게임에 참여,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인 뒤 이 중 4경원 가량의 사이버머니를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2천6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

○…오씨가 번 돈은 인터넷상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액수이지만 현실에서는 100억원(사이버머니) 대 1원(실제 화폐)의 환율로 교환됐다고. /연합뉴스